

2025 사순절 동부선린 일일묵상

4월 17일(목)



LENT

위기의 시대를 건너가는 여정

LENT

출애굽기 12장 1~4, 11~14절

- 1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 2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 3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 4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 11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 12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 13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 14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위기의 시대를 건너가는 여정

‘유월절’(passover)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하였고, 바로가 이 요청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십니다. 재앙이 열 가지나 되었다는 것은 당시 세계를 구성하고 있던 낡은 질서의 속박이 얼마나 견고한 것이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처음 난 자녀와 짐승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한 의식이 바로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유월절 의식은 이러합니다.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틀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과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먹되 마치 곧 떠날 사람처럼 채비하고 서둘러 먹어

LENT

야 했습니다. 이 의식은 옛 시대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동시에 세상에 붙어닥친 총체적 위기 너머로 나아가는 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이와 같은 유월절 의식을 문자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의식이 전달하고자 했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노예로 살아야 했던 종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백성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자, 위기의 시간을 통과한 개인과 공동체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유월절에 담긴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온 세계가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던 시간을 지나, 갈등과 분열, 전쟁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이 마치 ‘역사의 유월절’을 지나는 시기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열개의 재앙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질곡에 빠지게 했던 욕망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재촉하는 시간이기때문에, 마치 먼 여정을 떠날 채비를 마치고, 마지막

LENT

식사를 나누는 것과 같은 마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건너가야 하는 전환점과 같습니다.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사회적 갈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쉽게 오지 않고, 낡은 시대의 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공동체를 새롭게 이어가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실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LENT

기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위기의 시간을 지날 때 절망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위기 너머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시간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를 주저앉히는 욕망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새 길의 여정에 함께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눈으로 보다오르는 건강한 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동부선린교회

담임목사 곽 선 근

천현성전 | 12956 하남시 하남대로654번길 22-10
새능성전 | 13025 하남시 산곡동로86번길 42
사무실 031)793-3179 팩스 031)793-3172
www.dbsunlin.com



홈페이지

www.dbsunlin.com



YouTube

동부선린교회

검색



유튜브